

미국 금리동결과 향후 전망

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

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7월 26~27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25~0.50%로 동결함
 -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브렉시트의 단기적 리스크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금리동결에 중요 변수로 작용
 - 투표결과는 9명 동결, 1명 0.25%p 인상
- 금융시장 상황(뉴욕 26일 오후 3시 → 27일 오후 5시30분)
 - 주식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장기금리는 하락
 - 원화 및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 등으로 약세
 - 주가(종가 기준) : 다우 0.11% 하락, S&P500 0.09% 하락
EURO STOXX 0.69% 상승
 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562% → 1.498%
 - 달러/유로 : 1.0986 → 1.1053
 - 엔/달러 : 104.66 → 105.24
 - 원화 NDF(1개월) : 1138.70 → 1131.75

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망

□ Fed가 금리결정 발표문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장에서는 금년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□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12월로 전망하는 시각이 다소 우세하나 9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

* 향후 FOMC 회의 일정 : 9.20~21일, 11.1~2일, 12.13~14일

- 11월 8일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 이전에는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함

• James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.12일 “브렉시트의 여파로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(wait and see)”며 금리인상은 “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”고 언급함

• State Street 이사인 Tim Graf는 “9월은 금리를 인상하기에 상당히 이르며 11월에 미국 대선을 치르는 점에서 12월 금리인상이 가장 기본적이다(default)”라고 함(Financial Times, 7.26일)

- 다만 9월 회의 이전 발표되는 고용지표 및 2/4분기 GDP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경우 9월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전망

• MUFG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Chris Rupkey는 “미국경제는 금리를 인상하기에 충분히 견고하다”며 “9월 금리인상 신호는 놀랍지 않을 것”이라고 함(New York Times, 7.14일)

- Dennis Lockhart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.14일 “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는 무시해도 좋을(negligible) 수준의 영향”이라며 “연내 최소 1회, 가능하다면 2회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”고 함

□ 한편 주요 IB의 경우 연내 금리 인상횟수를 1회로 보는 시각이 우세

주요 IB의 2016년 미국 정책금리 전망

기관	2016.3Q	2016.4Q	2016년중 인상폭
Standard Chartered	0.25~0.50	0.00~0.25	-25bp
BNP Paribas	0.25~0.50	0.25~0.50	-
Societe Generale	0.25~0.50	0.25~0.50	-
BNP Paribas	0.25~0.50	0.25~0.50	-
Deutsche Bank	0.25~0.50	0.50~0.75	+25pb
Nomura	0.25~0.50	0.50~0.75	+25bp
Goldman Sachs	0.25~0.50	0.50~0.75	+25bp
JP Morgan	0.25~0.50	0.50~0.75	+25bp

자료 : Bloomberg (7/27일 기준)

담당: 권민지 책임연구원
 김민준 책임연구원
 Tel. 051) 620-3187